

2월 지육시세는 3,300원/ 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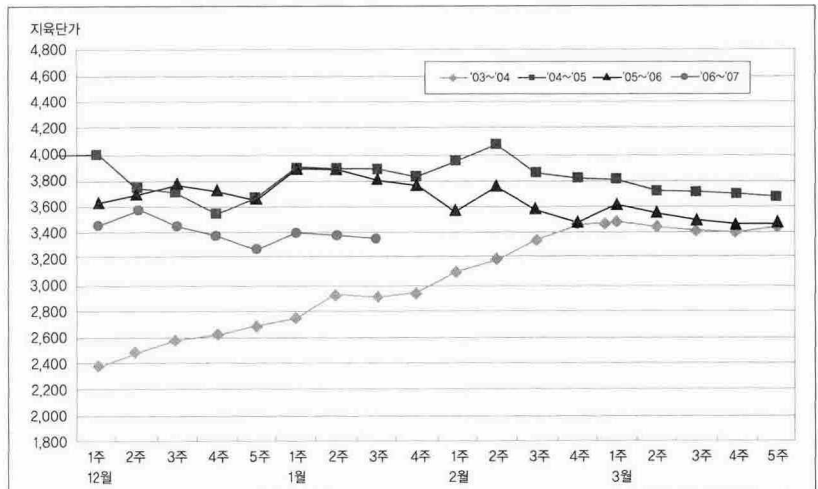
2006년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최고를 기록하여 210,462톤을 기록 하였다. 특히 2006년도 11월에는 전년 동월의 두 배를 넘는 22,713톤이 수입 되었고 12월에는 22,351톤을 기록하여 2006년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누 계 수입량은 210,462톤을 기록하였다.

돼지고기 수입량 210,462톤은 정육 상태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출하 체중에 도달한 돼지로 환산하면 더 실감이 난다. 출하체중 110kg짜리 돼지 에 정육을 47~48%를 곱해보면 대략 51~53kg 의 정육이 생산 되기 때문에 정육 1톤은 110kg 짜리 출하돼지 돼지 20두에 해당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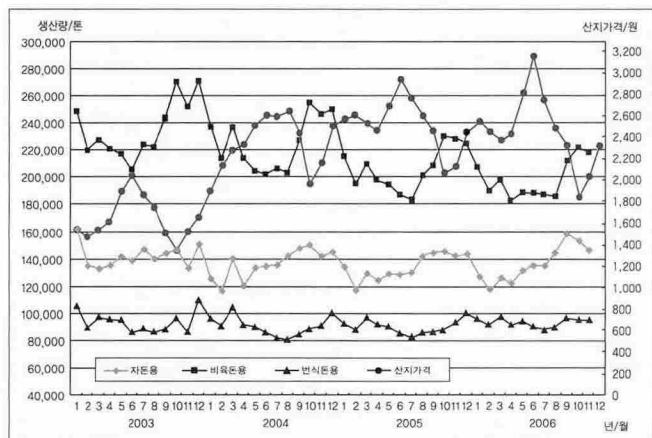
따라서 2006년도 수입량을 출하 돼지두수로 환산하면 약 4백2십만두가 수입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2006년도 국내산 돼지 도축두수가 13,028,183두이므로 합쳐서 약 일천칠 백이십만두가 소비되는 양돈 시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월 평균 143만 5천두의 돼지가 소비되는 시장으로 돼지고기 시장이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모돈수가 사상 처음으로 1백만두를 넘어 섰지만 농장 내에서 발 생하는 소모성 질병의 원인으로 폐사가 급증하면서 반대로 출하두수는 13백 만두 대로 떨어져 MSY(모돈 1두당 연간 출하두수)가 13두대로 떨어지고 말 았다. 이는 돼지 질병과 생산성 저하로 돼지 폐사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돼 지를 생산하는 양돈 농가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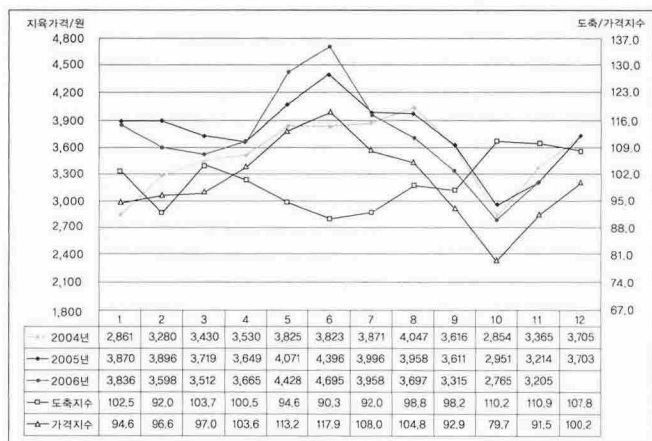
1999년~2002년에 MSY가 17두대로 올라선 후 생산성이 무려 25%가 하 락한 것이다. MSY 4두 차이는 생산비를 3~4만원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양돈 농가 입장에서 보면 고돈가 속에서도 적자를 낸 농장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 동향

않고 있다. 삼겹살의 소비 시장 감소는 금년도 삼겹살 수입량이 92,282톤으로 약 900만두 이상의 돼지에 해당하는 삼겹살이 수입되어 국내산 가격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게다가 방학까지 겹치면서 기타부위의 소비도 함께 줄어들면서 돼지가격은 약 보험세를 보이고 있다.

배합사료 생산량 중에서 자돈사료 생산량은 3개월의 비육돈 출하 두수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데 2006년 11월의 자돈 사료 생산량이 전월보다 5%가량 감소 하여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씩 감소하여 12월 출하 물량보다는 금년 2월 출하물량이 10~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 2월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기 때문에 설 이전과 이후가 소비추세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이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명절 전에는 보다 좋은 가격을 보이다가 명절 후에는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금년 2월은 상순 보험 하순 하락세를 나타내면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지육단가는 3,300원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동**

특히 11월~12월의 출하두수 증가와 돼지고기 수입량의 증가는 재고량의 증가로 이어져 1월 돈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월 첫주 전국 지육 평균단가 3,401원 둘째 주 3,383원은 예상보다는 하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수입 돼지고기 21만톤은 2006년도 국내산 돼지고기를 67.7만톤으로 추정할 때 국내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약 25%를 차지하고 이 물량은 국내 돈가 상승기에 언제든 들어오기 때문에 돈가 상승에는 걸림돌로 작용 할 것이다.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이 일정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수입물량은 국내 돼지 가격에 따라 빠르게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반대로 소비 시장에서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와 야외 활동 감소와 소비 부진 등이 겹치면서 소비 시장이 살아나지